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성낙성 기자 jebo8585@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5.11.20 19:40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최근 성주저수지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구현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특히 공사는 넓은 범위의 마을·논·밭·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2차('25.11월~'26.3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맞춰 캠페인을 추진하고 최대 규모의 저수지인 성주저수지에서 폐농약병, 스티로폼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저수지 수질 환경 보존에 힘썼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사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캠페인에 나섰다. 더 나아가서 성하고 다양한 민간기관, 지자체와 협업하여 ‘국민이 찾아오는 농촌 구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